

GLOCALISM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Empowering Sustainabl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Administration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LOCALISM



김동연의 지방시대
경기도사

GLOCALISM

MAGAZINE *about Gyeonggi*

2024. FEBRUARY Vol. 114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01

김동연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민생현장의 변화를 통해 국가운영의 혁신을 만드는 시대다.

07

경기도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 09.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열정을 펼칠 기회, '기회소득'
- 10. 반려마루, 「반려동물 메카」로 선도적 반려동물 정책 추진
- 11. 전 도민,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 혜택 'The 경기패스'
- 12. 메가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 그 중심에 경기도
- 13. 부르면 바로 오는 수요응답형 택버스(DRT)

15

경기도 주요 정보

- 17. 축제와 문화행사
- 20. 경기도의 볼거리



21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경기도 편

(주)핀텔 김동기 대표이사

29

지방시대, 일본 편

- 31. 사이타마현 오가노정(埼玉県小鹿野町)
- 33. 도쿠시마현 무기정(徳島県牟岐町)
- 34. 시마네현 하마다시(島根県浜田市)

37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2024년 중앙정부 정책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지방시대는
민생현장의 변화를 통해
국가운영의 혁신을
만드는 시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김동연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민생현장의 변화를 통해 국가운영의 혁신을 만드는 시대다.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방시대의 대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지역사회 복지와 경제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경기도는 지역 간 상생협력과 강화, 중앙정부와의 상호존중을 통해 자율성과 지역 간 불평등 완화라는 문제를 해결해 왔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정부다. 경기도 일선 시·군·구에서 일어나는 민생현장의 변화가 경기도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개최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현상 해소와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 전략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권한 중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은 과감하게 내놓고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하며 지방행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곧바로 국가 운영의 혁신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체인저
경기도는 민선 8기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2040년까지 17년간 경기북부 지역에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린다는 비전이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정책에서 배제 되어왔던 경기북부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회발전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이며, 경기도는 물론 비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추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은 머지않은 미래에 국제통상의 중요한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구조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가장 앞서 움직여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기업의 RE100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하며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있다. 정부 차원의 RE100 정책이 다소 아쉬움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광폭 투자는 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성장, 고용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만의 특화된 복지 전달체계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정책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긴급복지 핫라인, 취약계층 냉난방 긴급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360°전방위 돌봄이라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연결된다. '경기 360°돌봄'은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360°돌봄은 경기도의 빈틈없는 복지정책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청년 정책

경기도는 일자리가 풍부하고 서울보다 신도시 등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청년 인구의 유입이 활발하다. 실제 2015년 대비 2022년의 청년 인구(20~39세)가 증가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유일하다.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은 이유다.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과거 청년배당, 청년국민연금 지원, 스타트업 공간 조성 등 보편적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청년들이 꿈에 도전할 수 있는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 활동과 수험생활을 지원하고 당장의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와 면접을 지원하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처음 마련한 청년 사다리, 청년 깎이어,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등 청년 패키지 정책을 비롯한 사업들이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가 '기회수도'로서 청년층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청년층에게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중앙정부에서 한국 경제정책의 주축으로 일해온 김동연 지사는 지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기도의 투자 유치는 1년 반 만에 50조 원을 상회하며 취업 당시 약속한 100조 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산업 육성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이 증가함으로써, 경기도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타트업 등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면서 청년 일자리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시대의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경기도의 정책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로써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대한민국 '기회수도' 경기

경기도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열정을 펼칠 기회, '기회소득' 반려마루, 「반려동물 메카」로 선도적 반려동물 정책 추진 전 도민,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 혜택 'The 경기패스' 메가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 부르면 바로 오는 수요응답형 톱버스(DRT)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열정을 펼칠 기회, '기회소득'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기도 대표 정책이다. 시행 첫해인 23년에 예술인 7천여 명, 장애인 7천 명 등 총 1만 4천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24년에도 경기도는 기회수도로써 도민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회소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수원시가 추가로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반려마루, 「반려동물 메카」로 선도적 반려동물 정책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반려마루 문화센터 1동, 보호동 3동 및 관리동 1동의 시설을 갖추고 유기동물 보호·입양,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미용·훈련 등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대학 현장실습 지원 및 산학채용 설명회,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화성시의 한 강아지 번식장에서 학대받은 강아지를 동물보호단체와 구조한 후, 이 중 687마리를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다. 구조 동물들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을 진행한 후, 12월 중순까지 241마리가 입양됐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 복지국으로 변경했는데, 이 같은 동물복지국 설치의 전국 최초 사례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발표하였다.



전 도민,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 혜택 'The 경기패스'

경기도는 2024년 5월 전 도민,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포함)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상 광역 이동이 잦고, 요금체계가 다양한 경기도의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에 경기도만의 추가적인 혜택을 더했다. 19세 이상인 경기도민이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교통비의 20%를 환급받게 되며, 19~39세의 경우 10% 추가 지원하여 30% 환급, 저소득층의 경우 53%를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The 경기패스'는 전용 카드 발급 후 매월 자동 환급 예정이며 별도의 충전이 필요하지 않아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이뿐만 아니라, 6~18세 경기도 거주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경기버스 및 연계환승통행에서 수도권 버스, 지하철 통행을 추가 지원하고, 더 나아가 전국 버스, 지하철 통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 24만 원 한도 내 버스과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환급하고,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1천 원 즉시 할인까지 더하여 넓은 지역을 이동하여 통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고물가 추세 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The 경기패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메가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 그 중심에 경기도



반도체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이다.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국은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은 세계 1위(약60%)이나, 전체 시장의 약60%에 달하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은 미약(약3%)한 상황으로 도약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신규 클러스터(남사·원삼), 기존 생산단지(평택·화성·이천·기흥), 소부장(안성), 팹리스(판교) 등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신규 대규모 클러스터는 민간투자자도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2042년까지 300조를 투자하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삼에 2036년까지 120조 투자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 7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평택 지역의 4개 산업단지(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기흥 농서지구 연구단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국내 첨단산업 생산 및 혁신 거점 기틀을 마련하였고, 소부장 특화단지인 안성 지역(동신 일반산업단지)이 지정되어 반도체 공급망 자립 강화가 기대된다.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하여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협력기업·지원기관 등을 집중유치하고 집적화하여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메가클러스터 구축으로 메모리·팹리스·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체 분야의 밸류체인이 완성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부르면 바로 오는 수요응답형 푹버스(DRT)

경기도는 푹타 앱(통합교통플랫폼)으로 목적지를 검색하면 AI가 실시간 수요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생성해서 기존 노선버스보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푹버스(DRT)를 운영 중이다. 올해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11개 시·군 136대 도입하였으며, 내년에는 261대까지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푹버스(DRT)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으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까지 적용되어 교통비 절감, 이동 편의 등 도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앱 호출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 등을 위한 전화 호출 서비스 확대, 주요 거점(마을회관 등) 키오스크 설치로 누구나 쉽게 호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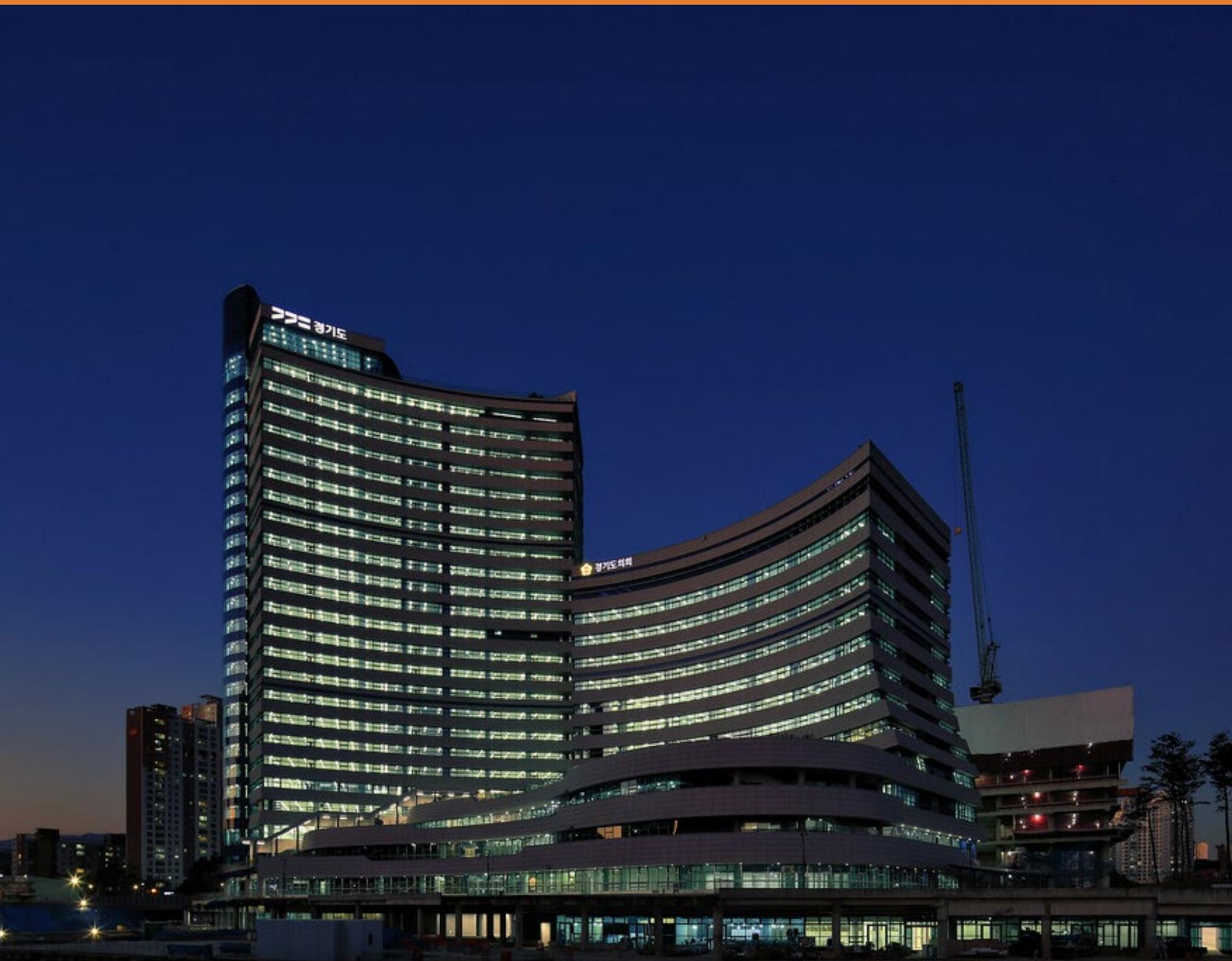
또한,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의 비효율적 운행 중인 노선을 푹버스(DRT) 전환 추진하여 이동 편의성 및 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문화로
지속가능한 경기

경기도 주요정보

축제와 문화행사
경기도의 볼거리



축제와 문화행사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1년부터 개최한 경기인디뮤직 페스티벌은 인디뮤지션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면서 인디신(Scene)에서 활동을 시작한 뮤지션을 20여개팀 이상을 초청해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페스티벌이다.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시·군에서 10월에 2일간 개최한다.

다큐멘터리 축제의 장,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매년 가을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특례시에서 국내 최대의 다큐멘터리 축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열린다. 2024년 제16회를 맞이하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130여편의 국내외 최신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상영작과 연계한 강연, 포럼, 토크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24. 9. 6.(금) ~ 10.20.(일)/ 45일간

올해 12회를 맞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 일대에서 열리게 된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에서 주최/주관하는 이 행사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시각예술행사로서 전시교류행사, 도민 예술페스티벌, 경기곳곳 협력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침체된 도자문화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품격 높은 국제행사 개최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 01
- 02
- 03

01.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0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03.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수원화성문화제(10월)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듣고, 즐기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역사적 정취가 깃든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문화제의 마지막 날 연계축제로서 펼쳐지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원형을묘정리의궤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왕실 퍼레이드이자 시민참여형 퍼레이드로서 축제의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화성뱃놀이축제(6월)

화성시 대표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는 요트 승선체험을 할 수 있는 해양 문화 축제이다. 해상 케이블카와 제부 마리나를 연계하여 다채로운 요트 승선 체험을 선보이고, 수상 스테이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해상 파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시민의 열정으로 거리를 채우는 '바람의 사신단 시민 댄스 퍼레이드'도 확대되어 펼쳐진다.



시흥갯골축제(9월~10월)

시흥갯골축제는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에 위치한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생태축제이다. 자연 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갯골에는 농게, 방게 등의 갑각류, 양서류를 비롯해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옛 염전 터와 습지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자연에서 쉬고 배우며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동화되는 축제로 생태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차 없는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 01
- 02

01. 수원화성문화제
02. 화성뱃놀이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10월)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통문화공연 축제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사당 놀이를 소재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남사당 및 줄타기 공연을 비롯하여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은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연천구석기축제(5월)

30만년 전 인류의 생활이 깃든 대자연 속 터전인 유적지와 초기 인류 지혜에 더해지는 현대 사람들의 창조적인 놀이문화의 만남이 담긴 체험 중심의 선사 문화축제이다. 선사 문화 연천 전곡리 유적은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곳으로 동아시아 최초로 양면이 가공된 주먹도끼가 발견된 세계적인 유적이다. 구석기 바비큐, 선사문화체험, 세계전통민속체험 등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01
- 02
- 03

01. 시흥갯골축제
02.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03. 연천구석기축제

경기도의 볼거리

일상 속의 평화로운 쉼터, 임진각 평화누리

6.25전쟁, 분단, 이산가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다. 명절 때면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 모여 합동 차례를 지내는 망배단이 있고, 7·4 남북공동성명 때 남북회담 대표가 오간 자유의 다리, 장단역 부근에서 가져온 증기기관차 등 남북 분단의 현실을 말해주는 조형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바람의 언덕, 음악의 언덕 등 야외 공원이 들어서며 평화로운 공원으로 풍경이 바뀌었다. 푸른 하늘과 너른 잔디밭, 다정한 산책로가 어우러진 야외 공원은 평화로운 초여름을 만끽하기 좋은 장소다. 특히 바람의 언덕을 장식하고 있는 3,000여 개의 바람개비와 대나무로 엮은 높이 3~11m 인물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 명소로 인기가 높다. 임진각 옥상에 오르면 멀리 북한 땅도 보이고 잔잔히 흐르는 임진강과 철로, 독개다리, 자유의 다리, 임진각 평화누리 등이 내려다보인다.



조선 성곽 건축의 꽃, 수원화성

조선 성곽 건축의 꽃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부친의 원침(園寢)을 수원 화산으로 옮긴 후 1796년 9월 완공된 성이다. 정조의 효심이 담긴 화성행궁은 전국에 조성한 행궁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다.

수원시의 상징이자 명소인 수원화성은 성벽을 따라 산책로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다. 화서문 - 장안문 - 화홍문 - 방화수류정 - 활터까지 이르는 성벽 길은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해진 저녁 산책하기 좋다. 특히 화홍문 옆의 호수, 용연 언덕 위에 있는 방화수류정은 수원에서 숨겨진 테이트 인기 장소다.



- 01
- 02

01. 임진각 평화누리
02. 수원화성

In search of Glocal Innovators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경기도 편

최수현(협의회 대학생 서포터즈 18기)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잠들지 않는 눈,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분석 솔루션 전문기업
(주)핀텔의 김동기 대표를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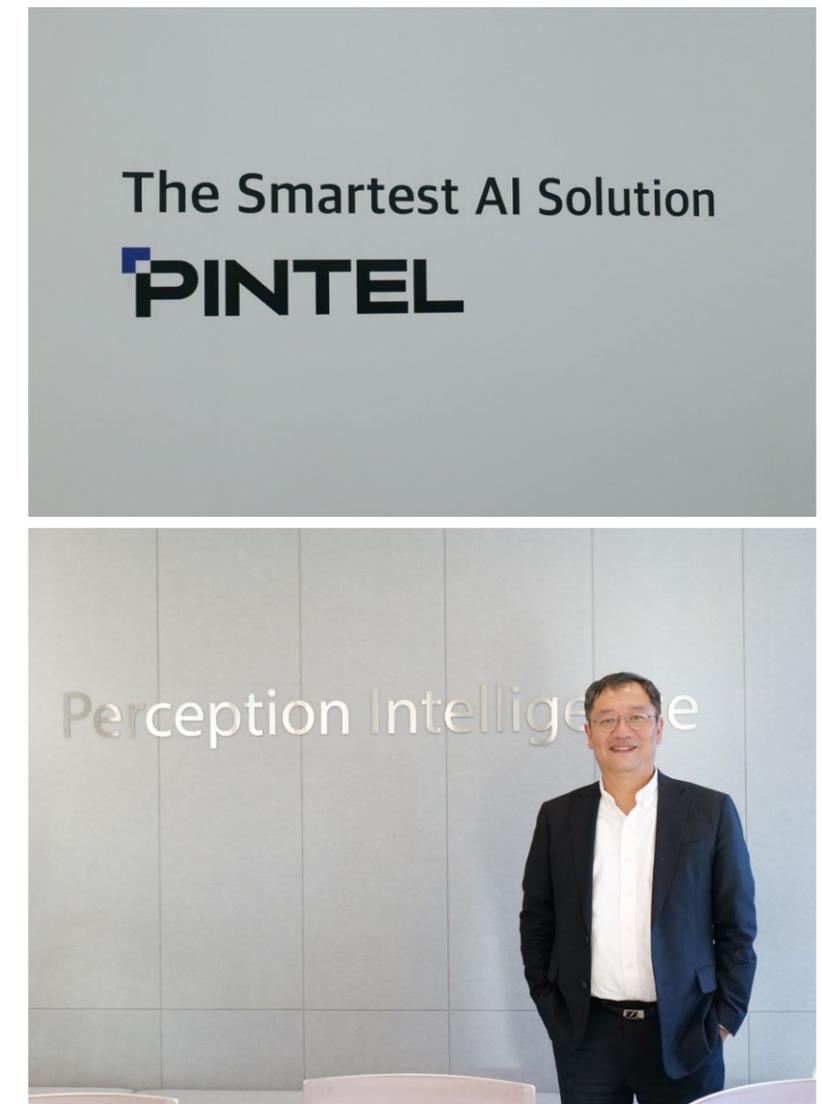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잠들지 않는 눈, (주)핀텔

2015년 처음 출범한 (주)핀텔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해상도 영상을 분석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전문 기업이다. (주)핀텔은 독자적인 기술로 여러 차례 인정을 받은 바 있다. 2017년에는 '퍼스트 펙권'에 선정되기도 하였고, 2022년에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발을 내디뎠다.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기술의 가치는 더 증대했다. (주)핀텔은 기술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창업 초기에는 기술 개발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주)핀텔은 딥러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객체를 추적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 교차로 구축, 보행 안전 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를 이루는 교통 및 보안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용 분야를 넓혀나가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마트 라이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핀텔의 김동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기술을 통한 행복한 삶

김동기 대표는 20년이 넘는 영상분석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학계에서 시장으로 넘어오던 시기에 김동기 대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 솔루션이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창업을 결심했다. 해외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LG CNS에 입사하여 IT업계의 실무를 익혔고, 인간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각지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크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시각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의 경력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김동기 대표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도로의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업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으로 대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된 현재에도 이를 다루고 인식하는 데 이전의 공부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왜 경기도인가?

경기도는 인구가 많아 수요가 많고, 권역 교통이 발달하여 수도권 내 주요 고객들을 빠른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잡한 서울에 못지않게 인력의 수급과 사업의 활성화 부분에서 어느 광역자치체보다 최적화되어있는 것이다. 핀텔을 운영하는데 있어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교차점으로 경기만 한 지역이 없었다는 것. 그 점이 김동기 대표에게 경기도가 매력으로 다가온 이유였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던 원동력

핀텔은 사업 초기 매출을 내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과감히 R&D에 투자했다. 그 결과 높은 기술력을 통해 영상분석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사업 초기 기술의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선 '기술에 대한 믿음'이라는 답을 전해 들었다. 자본과 규모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생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기술뿐이라는 점이 김동기 대표의 신념이었다. 김동기 대표는 "영업력이나 기타 수익으로 일시적인 사업의 부흥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업에 대한 이런 생각은 중소기업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인 사고"라며 기술 투자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지향적 기업문화

핀텔의 기업문화는 정량화되거나 계량화되어 있지는 않다. 대신 미래기술을 다루고 개발하는 기업이 관료 지향적이거나 권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김동기 대표의 신념 때문인지 오픈된 사무실과 허물없이 지내는 직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동기 대표는 "자율과 창의에 근간해 지시를 최소한으로 한다. 각자의 상식과 논리를 통한 양심과 도덕을 발휘해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규정 없는 회사를 만들었다. 일부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걸 느끼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문화가 자리 잡으면 진정한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행복이 결국 자율과 창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도출 과정의 기쁨과 결과의 기쁨을 함께 쟁기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동기 대표가 대기업 근무 당시 경험한 보수적 문화의 개선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일환이었다.



민감정보를 다루는 법

초연결사회와 뗄 수 없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일 것이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인공지능 역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과 이용 영역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핀텔은 가장 많은 개인의 정보를 가진 영상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만큼 프라이버시와 기술의 함의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김동기 대표는 "영상은 표현하고자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영상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 필요 정보만 선택해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최대한 줄여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집된 데이터를 우수한 서비스를 가진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느냐, 개인의 민감정보를 파기하고 서비스의 개발을 중지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영역이 아니라, 점차 기술의 발전과 공동체의 속의 과정을 통해 합의해 나가야 할 문제다. 또한, 국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조치하는 기술들이 병립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핀텔의 목표

(주)핀텔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주)핀텔의 솔루션으로 모든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주)핀텔은 기술의 고도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안양시 스마트스쿨존 사업, 수원시 ITS 구축 사업 등 교통 및 보안 분야에서 솔루션을 활용한 사업에 기술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야에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적용 사례_안양시 어린이 보호구역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

김동기 대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입지를 다져야 함을 강조했다. “영상분석은 다양한 사업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기술적인 차별 요소가 많은 영역이다. (주)핀텔은 기술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수 있었다.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일은 그 기술성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입지를 다져나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출 지역에 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세계에서도 통하는 (주)핀텔의 기술력을 입증하겠다.”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월간지방시대 구독자들에게



김동기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가마다 좋은 도시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각 도시의 균형 발전이 없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더불어 “미래에는 97%가 플랫폼의 노동자가 되고 3%만이 플랫폼을 소유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 한다. 미래 세대들이 현재만을 생각하기보단 깊은 사고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갔으면 좋겠다. AI의 시대가 도래한 뒤 사라질 직업과 생겨날 직업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애정이 어린 말을 전했다.



In case of Glocalism in Japan



지방시대, 일본 편

협의회 일본사무소

청년 취업기회 확보와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진흥 사업

-사이타마현 오가노정(埼玉県小鹿野町)

젊은 세대가 일으킨 작은 기적

-도쿠시마현 무기정(徳島県牟岐町)

음대 출신 청년 이주 활성화

-시마네현 하마다시(島根県浜田市)

**청년 취업기회
확보와 관광
진흥을 위한
지역진흥 사업**
사이타마현 오가노정
(埼玉県小鹿野町)

오가노 정 의 상황

오가노 정은 사이타마 현 북서부에 위치하고 지치부(秩父) 시 및 군마현에 인접해 도쿄 도심부에서 대략 100킬로 거리에 있다. 지치부 분지의 거의 중앙에 있으며 총면적은 171.26km²로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 마을 동쪽 부분에 있으며 거의 중앙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 산간에는 작은 촌락들이 산재해있다. 산업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기, 기계 등의 공업을 중심으로 보건 의료복지 사업소, 관광 관련 사업소에 많은 마을 주민이 종사하고 있다. 농업은 소규모로 영세한 겸업 농가가 많은 상황이고 관광에 대해서는 연간 약 34만 명의 방문 관광객이 있지만 당일치기 여행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 인구는 구 오가노 정과 료가미(兩神) 촌이 합병한 2005년에는 약 15,000명 정도였지만 2015년에는 12,117명이 되었고, 이후 과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10,429명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특정지역 조합 설립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보를 위해 2022년 2월에 오가노 정 특정지역조성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7월에 특정지역조성사업제도의 인가, 노동자파견법의 신청을 하고 직원을 모집하여 2023년 2월부터 파견사업을 개시했다. 아직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 사업자 수 8개사, 사무국 직원 2명, 파견 직원 1명 등 총 3명으로 인력 파견 사업 외 지역 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개요	
단체명	오가노 정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협동조합
설립년월일	2022.2.28
시정촌*	10,429명
파견직원수	1명
조합사업자수	8명
사업비(공비보조액)	5,967,771엔(5,662,000엔)

* 한국의 '시군구' : 기초지자체

인재파견사업

조합의 주요 사업은 인력 파견업이다. 현재 조합원 중 3개 사업자에 대해 인력 파견을 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은 호텔 프런트나 레스토랑 서빙, 양조업에서의 상품 포장 발송 작업 등이다. 또한 이 파견 직원은 농업에 관심이 있어 이주해 왔기 때문에 조합원 와인 양조장의 원료가 되는 포도밭에 서의 작업도 하고 있고 파견사업에 있어서는 인재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1. 지역진흥사업 · 도시인재활용 계획

지역진흥사업

조합원 사업소의 디지털 전환 추진, ICT 이활용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사업소의 수익 증가나 조합원 연계에 의한 지역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 진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국가 관련 정보 통신 · 디지털 전환의 전문 법인과 연계를 도모, 산하의 대기업 ICT 기업 등으로부터 고도의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재의 협력을 받아 부업 등에 의해 실현성 ·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인재는 정보통신의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각각의 회사에 있어서의 국내외 영업이나 마케팅업무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어드바이스나 현지에서의 지도를 받고 있다.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지역 진흥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검토나 조정을 시작한 단계의 사업도 포함한다.

- 여행상품기획사업
〈힐링여(女) 여행〉 상품 기획과 여행사업자에 의한 판매
- 신형 EC사업
라이브 커머스(인터넷 화상 쇼핑) EC 판매
- 조합원 상품 판로 확대 사업
오가노 정 연계 협정 체결처(도쿄도내)에서의 정기적인 상품, 농산물의 전시 판매
- 해외 판로 확대 사업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한 검토, 제트로(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의 EC 사이트 활용 예정
- 인바운드 고객 유치(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
현역 DMO와 연계한 고객 유치(관광객 유치) 확대
- 클라우드 펀딩 이활용 사업
신상품 개발(조합원 콜라보 상품 등), 설비 투자에 있어서의 이용 · 활용
- 위케이션 고객 유치(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
현역 DMO와 연계한 고객 유치(관광객 유치) 확대
- 조합원 사업소 DX 추진사업
ICT나 DX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
- 오사카 엑스포 2025 참가 사업
도시 인재 활용, 여성 활약, 지역 활성화를 SDGs 관련으로 참가신청 준비

특정지역조합사업 운영의 과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에서 인력 파견업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원 책임자 및 그 직무대행자의 2명의 사무국 직원이 최소한 필요하다. 이들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명 정도의 파견직원이 파견지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 파견인력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자는 비교적 근무 조건이 느슨한 지역 내 협력

대원으로 흘러가 버려서 풀타임 파견 직원은 꺼려 하기 쉽다. 또한 지역 거주 청년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고용 직원이라는 입장은 꺼려하기 쉽다.

그래서 당 조합은 오가노 정에 대해, 국고교부금 대상 외 경비를 보충 받고 있는 것 외에, 마을 이외의 보조금, 교부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진흥사업은 조합이미지 제고를 통한 직원 모집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주 검토자로부터의 의견 청취·청문이나 취직 상담을 통해 들어보면 풀타임의 일은 희망하지 않는 한편, 이주 후의 일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다. 그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20~24시간을 조합 파견 직원으로 호텔, 여관, 양조장 등에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자영 카페를 개점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이나 의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특정 지역 사업의 운영 자원 부족은 전국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주로 지자체로부터의 교부금 대상 외 경비의 보전이나 위탁 사업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이나 의회의 이해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직원에 의한 활발한 활동이나 사업 실시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진흥 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조합원끼리 협력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조합원 각각의 매상에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합은 여성 경영진의 활동이 특히 활발한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본 사업이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의 일조하는 것 또한 목표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 라이브 동영상으로 온라인 판매

과소마을에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함

무기정은 도쿠시마현 남부의 인구 3,700명의 작은 마을이다.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도 없는 마을에 대학생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 2014년 개최된 일반사단법인 HLAB(이하 <HLAB>)에 의해 국내외의 대학생이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을 제공하는 서머스쿨이 개최 된 것이었다. 이 운영에 참여한 일부 대학생들이 서머스쿨 기간 중 신세를 진 무기정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NPO법인 히토즈무기(사람을 잇다, 연결한다 라는 뜻)를 설립. 중고생 대상의 경력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착수했다.

HLAB나 히토즈무기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1, 2년이면 담당자의 교체가 반복되는 대학생들의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활동비의 확보나 지역과의 조정에도 과제가 많았다. 그래서 2017년에 대학생과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써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다.

대학생들의 활동이 본격화된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지방 창생>이 주목받으면서 각 지자체에서 인구 비전이 만들어졌다. 무기정에서는 전국적인 인구감소 국면

젊은 세대가 일으킨 작은 기적
도쿠시마현 무기정 (徳島県牟岐町)

속에서 이주자 획득 제로섬 게임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편,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대학생이 미치는 효과에 착안해 관계인구라는 말이 퍼지기 전부터 관계인구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 후 국가 정책에 <관계인구>가 등장함으로써 무기정에서의 활동 컨셉이 재 정의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림 1. 관서권에서의 관계인구 활동 (교토산업대학)

<듀얼 필드>에서 활동전개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무기정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은 연인원 1,000명을 넘어섰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돌입하면서 인파가 순식간에 멈췄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무기정에서는 코로나 감염에 민감하고 타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다. 그래서 교토 산업대학 및 오사카 공립 대학의 제미(Seminal)의 졸업말로서 대학 등의 교수 지도아래 행하는 학생의 공동 연습, 연구)와 함께 무기정 내에서의 현지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관서권(일본의 '간사이'지방, 오사카, 교토, 고베 등)에서의 특산물 판매나 지역출신자와의 관계 발굴을 전개하는 등, 시골과 도시지역에 활동 거점을 마련하는 「듀얼 필드」라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교육 지원에 있어서도 HLAB에 의한 온라인·서머 스쿨이나, 히토즈무기의 대학생에 의한 온라인 평화 학습 등, 젊은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코로나 팬데믹을 역이용 한 활동이 생겼다. HLAB나 히토즈무기의 활동으로부터 8년을 거쳐, 당시 활동의 담당자였던 대학생이 사회인이 되어 무기정에 <귀향>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 활동에 참가한 중학생 중에서 마을사무소 직원이나 대학생이 되어 담당자로서 활약하는 인재가 탄생하고 있다.

무기정에서는 실적이 있는 사회인이나 기업에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학생 시절부터 연결되는 인재를 길러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가는 <인재 에코 시스템>이 성립되고 있다.

「인재육성」은 투자 효과가 보이지 않고, 게다가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에 끈질기게 임하는 지자체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계속 발을 맞춰 함께 해 준 무기정은 매우 드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음대 출신 청년 이주 활성화
시마네현 하마다시 (島根県浜田市)

계기는 다나카 선생님의 질문

“음대졸업생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음악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졸업생들의 취업을 받아 줄 곳은 없을까요?”이런 질문이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협동조합 (Biz. Coop. 하마다) 설립의 계기이다.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이시미(石見) 음악문화진흥회의 대표이사이자 지역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지도 교사를맡고 있는 다나카겐이치(田中 健一) 선생님이었다. 이시미 음악문화진흥회는 이 지역에서 듣기 힘든 유명한 연주자들을 초청해 현지 멤버들로 결성된 오케스트라 등과 협업하면서 정기적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와 병행해서 도시로부터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졸업생을 몇 명 초대해, 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도록 하는 활동도 해왔으며 그 활동을 통해서 전국에는 대학에서 음악을 배워도 취업 후에 전혀 그 스킬을 살리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많은 음대 졸업생들이 이곳에 모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Biz. Coop. 하마다 설립으로

바로 그 무렵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이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을 창설했는데 이는 지방의 일손이 부족한 기업, 단체와 도시로부터의 귀농자를 매칭 시키는 조직을 만들어 도시에 집중하는 노동자를 지방에 재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이 법률의 취지대로 기능한다면 지방의 새로운 마을 만들기가 될 것이 기대되었다.

이 제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만들려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가? 먼저 귀농자로 받아들이는 인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등에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워온 졸업생이 대상이다. 파견하는 기업도 어떤 직종이라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 환경인 것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파견지의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1일 6시간 정도, 월 132시간 정도가 되는 직장일 것, 가능하다면 직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직장일 것 등을 조건으로 직종을 검토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돌보는 방과후 학교 클럽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설계하기로 했다.

단체개요	
단체명	협동조합 Biz.Coop.하마다
설립년월일	2020.12.10
시정촌*	50,176명
파견직원수	7명
조합사업자수	4명
사업비(공비보조액)	13,818,000엔(8,222,000엔)

* 한국의 '시군구': 기초자치체

이질적인 조합이지만 본래의 목적에는 맞는다. 이 제도에서는, 수용한 귀농자는 제도적으로는 무기고용이지만, 이 조합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조합을 퇴직하고 지역 기업에취직하여 그 결원을 새로운 귀농자로 보충하는 것이 이상적인 흐름이다. Biz. Coop.은 아직 전체 정원을 10명 정도, 조합에서의 취업 기간을 3년 정도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3년간 Biz. Coop.하마다에서 조합 법인에서의 취업을 경험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스킬을 연마하고, 조합 법인으로의 취업 또는 기타 현지 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게 된다. 기쁘게도, Biz. Coop.하마다는 첫째 6명의 회원 중 이미 3명이 Biz. Coop.하마다를 퇴직하고 조합 법인에 취직했고, 또 이를 보충해줄 인력도 충원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 협동조합은 전국에서도 많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비슷한 다른 조합과 Biz. Coop.하마다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귀농자라고 해도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파견 직장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이 조합은 본래 생각했던 제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다지 권장되는 제도는 아닐지도 모른다. 단지,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인 <지방의 일손 부족의 기업, 단체와 도시로부터의 귀농자를 매칭 시키는 흐름을 만들어, 도시에 집중하는 노동자를 지방에 재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닐까.

제도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이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잘 되는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역시 <귀농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구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도시는 저마다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귀농자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환경이 있다면 사실 어디든 좋다. 지금의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은 수용하는 측의 기업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편리한 제도가 되고 있지만 귀농자·이주자에게 매력적인 직장으로 비칠지는 의문스럽다.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귀농자가 계속 유입이 될지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농자가 와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다.

Biz. Coop. 하마다는 매년 많은 견학자가 오지만, 한편으로 파견처인 기업 개척에 고생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처 기업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그 격차를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가 Biz. Coop. 하마다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과제이다. 과제 해결에는 Biz.Coop.하마다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과도 함께 협력하면서, 적극적인 수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통감한다.



그림 1. 음대졸업생들에 의한 정기연주회



그림 2. 방과후 클럽에서 연주를 하는 음대 졸업생들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박관규 센터장(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이우정 연구위원(협의회 정책연구센터)

2024년 중앙정부 정책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윤석열대통령은 2024년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진행하고 있다. 몇몇 중앙부처들의 정책부문을 묶어 대주제를 선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관련 정부부처와 국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형식으로 2024년도 주요정책을 논의하면서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2월 5일의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까지 9회가 진행되었다. 당초 10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15회로 확대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본 글은 국민과 함께하는 1회부터 9회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주요 내용 중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기반으로 2024년에 중앙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요

대통령실이 2024년 신년 부처 업무보고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2월 5일까지 9회가 개최되었고, 앞으로 6회 정도 더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민생토론회는 경제부문의 주제로 시작하여, 사회부문의 정책현안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처 업무보고를 대신하는 성격의 민생토론회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진행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지난 9차례의 민생토론회 주제와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와 일정

날짜	주제	비고
1.04(목)	활력있는 민생경제	
1.10(수)	국민이 바라는 주택	
1.15(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1.17(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1.22(월)	생활규제 개혁	
1.25(목)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1.30(화)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고	
2.01(목)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2.05(월)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활력있는 민생경제

“새해에 우리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며,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푸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한다.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하여 국민들이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1월에 마포 타운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을 정부 고위직들이 직접 찾아서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왔다. 그래서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택시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여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제도화하고, 그 이후에 공매도 금지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고, 노후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꿀 것”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다. 현재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이는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은 것이 정말 큰 문제이다. 이러한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의 관점 그리고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푼다는 입장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는 계획이다.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 등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조속히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전히 완화한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료 인상은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원리에 기반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 그리고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을 살피우는 반도체 산업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넘버원이 바로 반도체...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치열한 속도전 필요”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AI,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소위 3대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 자산은 반도체이다. 그리고 반도체는 최첨단 무기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들도 역시 반도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산업이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미 투자는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에만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우리나라만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만료되지만, 법의 효력을 연장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진작시켜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키도록 할 것이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만들 것”

최근 AI, 디지털 기술 발전을 계기로 해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

먼저 지난해 늘어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산업에 있어서 독과점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모두 공개되고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의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여 대대적 신용 사면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생활규제 개혁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 혁파 :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향이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을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릴 것”



전국 대도시권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합계 2시간 정도 되고, 특히 경기·인천은 서울에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2시간 반 이상을 쓰고 있다. 이는 평균치에 해당하므로 4시간 가까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직장인이 많다. 이에 따라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 것이다. 의정부를 지나는 GTX-C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다.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A노선인 수서-동탄 구간은 3월에 개통한다. 또한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이 된다. 또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노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그리고 A, B, C 노선의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며, A노선은 평택, B노선은 춘천, C노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A노선과 C노선은 연장에 따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D, E, F 노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D노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되는 곳이고, E노선은 인천에서 서울의 강북을

통과해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노선은 수도권 순환선이 된다. D, E, F 3개 노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할 것이며, 또한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또 대전·세종·충청, 또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민간에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의 보호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디지털 정책 추진할 것”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디지털과 매우 밀접하다. 디지털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이다. 식당을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스마트폰 결제가 일상화되었다. 대부분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콘텐츠 상거래,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즐기고 누리고 있다.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또 국민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최고이다. OECD에서 평가하는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성, 플랫폼, 국민 주도 등 총 6개 세부 분야별 점수를 봐도 모두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 차로 우리가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이다.

정부는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윈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이다.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 타임”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부터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이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또 지역의료, 필수医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둘째,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인다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는 제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셋째,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医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지역医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医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이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므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일부 반대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혁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하고 2026년까지 전국·초등 전학년 확대”



부모님들이 자녀를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 환경을 확충한다.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에는 2천개 학교, 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 늘봄학교에서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에서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학교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또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또 학교가 되어야 한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고,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이런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무료 프로그램, 저녁식사 제공 등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또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향후계획

민생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10개 주제(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를 다룰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3월초까지 15회 개최하는 계획을 알렸다.

지금까지 진행된 아홉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와 그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이다. 일자리와 중소기업,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장소를 고려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창업 공간에서 일자리 및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방부가 군부대에서 관련 정책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소기업이나 저출산 대책 관련 정책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대통령실 보도자료(2024).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1.4.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1.10.
- 윤석열 대통령,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1.15.
- 윤석열 대통령,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1.17.
-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1.25.
- 윤석열 대통령,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1.30.
- 윤석열 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2.1.
- 윤석열 대통령,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024.2.5.
- 국무조정실(2024).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2024.1.22.
- 국토교통부(2024).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2024.2.5
- 연합뉴스. "윤대통령, 내일부터 새해 업무보고... 주제별 민생토론회 진행" 2024.1.3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3033700001>
- 한겨레신문(2024). "총선지원 대통령 민생토론회 3월까지...실현 가능성 의문표탄" 2024.2.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27216.html>

〈사진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편집후기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가 생각하는 지방시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지방시대를 위해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례 및 지방시대의 토대를 닦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인물을 찾아 소개한다. 또한 타 국가의 최신 정보 및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2024년 2월호는 '경기도' 편으로 구성,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지방시대 칼럼』은 경기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철학과 고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로는 기회소득, 반려동물 정책, The 경기패스, 메가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 똑버스(DRT)정책에 대한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경기도의 주요정보』에서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임진각 평화누리, 수원화성과 연천구석기축제(5월), 화성벚놀이축제(6월), 수원화성문화제(10월), 시흥갯골축제(9~10월)등을 홍보하고,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분석 솔루션 전문기업인 ㈜핀텔의 김동기 대표를 인터뷰 하였다.

『지방시대 해외정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사례 중 청년 취업기회 확보와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진흥 사업, 젊은 세대가 일으킨 작은 기적, 음대 출신 청년의 이주를 촉진하여 담당자 육성에 대한 정보를 실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시도의 특별판으로 기획되어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3월호는 “서울특별시”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발행일 2024년 2월 13일(제114호)

발행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형준 |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주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 문의 02-2170-6092